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11면	국힘 강릉시당원협 사랑의 연탄나눔	1
江原日報	22면	신명 나는 무대로 청소년올림픽 응원	2
江原日報	02면	"강원청소년올림픽 함께 빛내겠습니다"	3
강원도민일보	01면	"2024강원대회 성공 여러분이 빛을 내주시길"	4
G1방송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심사 시작	5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가동...내년 예산안 등 심의	5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강원 수소충전소·생산시설 확충 특단의 대책을"	6
江原日報	03면	道 감사위, 전자철판 보급사업 감사 결정	6
江原日報	12면	사립유치원교사 연찬회	7
江原日報	17면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출산율 문제 주목해야"	7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농림수산 예산 의회가 바로잡아야	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8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최명서(위 왼쪽) 영월군수·심재섭(위 오른쪽) 영월...	9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시성(왼쪽)·강정호(속초)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서울 싱크탱크 '초광역 협력·지역소멸 대응' 맞손	10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영국 맨체스터 '태권도 교류' 물꼬 튼다	11
江原日報	01면	춘천 기업혁신파크 막판 유치전 '7일 분수령'	11
江原日報	02면	춘천 기업혁신파크 막판 유치전 '7일 분수령'	12
江原日報	10면	춘천시-6개 대학 교육발전특구 조성 힘 모은다	12
江原日報	12면	강릉시 그린바이오산업 중심지 뜬다	13
江原日報	12면	"마지막 바다열차 타러" 강릉역 구름인파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기형적 총선 선거구 고착 우려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대형화재 잦아 철저 예방을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비대면 진료', 문제점 꼼꼼히 살펴 정착시켜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고금리에 주택 매도 급증, 가계부채 악화 관리를	17

강원도민일보

2023 12 05 ()

11



국힘 강릉시당원협 사랑의 연탄나눔 국민의힘 강릉시당원협의회는 최근 주문 4리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을 비롯한 강릉지역 시·도의원, 청년지회, 여성지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원문화예술 공연 행사가 지난 2일 강릉 월화거리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신명 나는 무대로 청소년올림픽 응원

강원문화예술 공연행사 강릉서 열려 ... 3개 단체 동참 눈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하나의 강원! 글로벌 강원! 문화의 향기로 강원을 노래하다!’를 대주제로 마련된 강원문화예술 공연행사가 지난 2일 강릉 월화거리 은행나무 앞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 권성동 국회의원,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사)강원민예총, 강원예총,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함께 기획한 첫번째 공동 행사로 치러져 눈길을 끌었다.

‘세계 속 강원의 문화를 꽃피우다’를 타이틀로 한 공연에서 강원예총에서는 소프라노 이경진과 테너 민현기가 무대에 올라

여자의 마음과 지금 이순간 등 오페라와 뮤지컬에서 만난 반가운 노래들을 들려줬다. 강원민예총은 재즈-셔플, 히슬라 댄스를, 도문원연합회는 타악과 무용 전공자들로 구성된 ‘더 얼썩’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외에도 홍광임 무용가의 ‘태평무’ 공연과 함께 남성 4인조 팜페라 공연팀 더보이스, 국악가수 권미희씨의 무대도 초청공연으로 화려하게 진행됐다.

서준호 강원민예총 사무처장은 “강원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선을 보이게 됐다”며 “올해 행사는 강원민예총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매년 세 단체가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예술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석기기자

2023 12 05 ()

江原日報

02

“강원청소년올림픽 함께 빛내겠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원봉사 발대식이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종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표 위원장,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김진태 지사, 신경호 교육감,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강선구 정선부군수, 박광구 강원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자원봉사자 대표 50명, 명예 자원봉사자 대표인 배우 이동욱·박재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자원봉사단 사인크루 발대 통역·안내 등 투입 예정 내달 8일부터 활동 시작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운영의 꽃인 자원봉사단 ‘사인 크루 (SHINE CREW)’가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자원봉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강선구 정선부군수,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광구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구 대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라며 “여러분들의 헌신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광구 이사장은 “선발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면서 대회 성공을 확신했다. 역대 최고의 청소년올림픽이 되는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최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횡성의 시장·군수들이 명예자원봉사단장으로, 배우 이동욱씨와 박재민씨가 명예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다. 이동욱씨는 자원봉사자 대표들과 함께 선서문을 낭독하며 “올림픽 정신으로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청소년올림픽이기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성인 올림픽보다 더 필요할 것”이라며 “대회 종료 때까지 빛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힘내주셔서 올림픽을 잘 치르길 바란다. 사인 크루, 고 투게더(GO TOGETHER)! ”라고 외쳤고, 신경

호 도교육감은 “자원봉사자로 함께하는 100여명의 청소년에게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번 대회 자원봉사자는 올 4월 모집을 시작으로, 요건 및 면접심사, 기본교육 및 외국어 테스트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총 2,030명이 최종 선발됐다.

자원봉사자는 통역, 안내, 문화행사, 수송, 숙박, 경기 운영 등 대회 모든 분야에서 발로 뛰면서 대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이달 중순 업무배정을 시작으로 직무 및 현장교육을 거쳐 내년 1월8일 첫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2 05 ()

01



2024강원대회조직위원회는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강원대회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세훈

“2024강원대회 성공 여러분이 빛을 내주시길”



강원도민과 함께 봄업

대회 자원봉사단 '샤인크루' 발족
봉사자 2030명 내달 8일부터 활동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최전선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샤인크루' (Shine crew·빛나는선원)가 발족됐다.

2024강원대회조직위원회는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최종구조직위대표위원장과 진종오·이상화 공동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교육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강선구 정선부군수,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개최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횡성 시장·군수가 명예 자원봉사단장으로, 배우 이동욱과 2024강원대회 홍보대사인 배우 박재민이 명예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다.

이들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모두 힘을 모아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협동을 통한 성장의 가치를 알리겠다”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

이번 2024강원대회에는 지난 4월 모집을 시작으로 요건 및 면접심사, 기본교육, 외국어 테스트 등 과정을 거쳐 선발된 자원봉사자 2030명이 참여한다.

봉사자들은 2023년 1월 8일 최초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 조직위원장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다. 대회 슬로건처럼 함께할 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유 장관은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청소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빛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자원봉사단의 명칭이 ‘빛나는 선원’이란 뜻의 ‘샤인크루’인 만큼 대회 성공을 향해 뜻을 올린 배에 승선한 우리 모두 감동적인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세훈

▶관련기사 23면

2023 12 04 ()

G1방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심사 시작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4일)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지며,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각 사업별 보고와 질의가 이어집니다.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7조 8천925억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천628억 원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7조 5천862억 원으로 편성돼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2023 12 04 ()

KBS 춘천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가동...내년 예산안 등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도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7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1,600억 원 감소한 7조 8,900억 원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또, 내년 당초 예산안도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 당초 예산보다 5,0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앞서,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전자철판 사업비 155억 원을 삭감했고, 농림수산위원회는 예산이 과도하게 줄었다며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송승룡 oberona@kb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2 05 ()

03

도의회 “강원 수소충전소·생산시설 확충 특단의 대책을”

속보=수소차 공급에 비해 수소 충전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본지 11월 23일자 1면 등)을 두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충전소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부하고 나섰다.

4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지난달 발간한 수소차 ‘수소 공급대란’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따져 묻는 목소리



원미희

조성운

가 쏟아졌다. 원미희(미래) 의원은 “속초는 장사동에 충전소한 곳에서 400대를 감당한다. 관광객 수요까지 합하면 문제가 더욱 심하다”고 구조적 문제를 짚었

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강원도 보급 수소차는 총 2938대, 도내 충전소는 총 12개소다. 충전소 한 곳당 차량 수는 244대 꼴이다.

수소 생산시설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운(삼척) 의원은 “충전소가 있어도 수소 공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며 “생산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달라. 수소차를 산 도민들은 차를 갖다 버리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철화

江原日報

2023 12 05 ()

0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도 감사위, 전자철판 보급사업 감사 결정

도의회 예결특위 질문에 감사위원장 답변

속보=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도교육청의 전자철판 보급사업(본보 11월 27일자 온라인 보도)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강원자치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본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전자철판 보급 사업 관련 계획을 질

문했다. 이에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지난 1일 회의를 통해 감사를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박윤미(더민주·원주) 도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도 운영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하다”며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 답례품도 더 개발하고 진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이지영(더민주·비례) 도의원은 “농림수산위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을 심사하며 우려한

바 있는데, 삭감 비율을 수치로 정해 두고 삭감하는 기조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은 “도립대가 간호학과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데, 태백의 강원관광대에 간호학과가 있다”며 합병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합병 시 도립대가 2캠퍼스 체제가 되고, 도에서는 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2023 12 05 ()

江原日報

12



사립유치원교사 연찬회 2023년 강릉시사립유치원교사 연찬회가 4일 강릉 씨마크호텔 아산트리움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정태범 강릉교육장, 김용래 도의원, 김양희 강릉 사립유치원연합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유치원장,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2023 12 05 ()

17

江原日報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2023년 제6차 회의

2023년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6차 회의가 지난달 30일 강원일보사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11명의 독자위원 중 6명이 참석해 최근 보도된 강원일보 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본사 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11월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남익기자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출산율 문제 주목해야”

△김종기 위원장=최근에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강원일보가 특히 올 하반기 들어서 편집상에서 큰 변화가 보였다고 생각한다. 편집국에서 의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독자 입장에서 볼 때 강원지도가 올해 큰 건이 많았다. 자치도 출범, 실록·외계 환수를 통한 박물관 등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1년 전면에 크게 내세워서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편집이 최근 들어서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신문사 입장에서선 굉장한 마음먹고 하는 것일 텐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 도민들 입장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싶고 있는 게 기사를 쓰는 게 기자들 입장에서선 부담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써주셔서 긍정적으로 본다. 또 지난해 심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최대한 얼굴이 나온 스포츠면 사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독자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광운 위원=신문을 보다 보니 마침 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동안 언론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탈률이 높은 양구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100% 정착한 홍천 기사만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착에 강원도가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기사가 나 인상 깊었다. 그들을 일시적 계절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데 국한되면 수도권으로부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계절적 노동력 부족의 대안이 아닌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의 해결책으로 봐야 한다. 다민족 다문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외국인 노동자들

이 우리 사회 지역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구 유입과 출생률 상상을 위해 들이는 예산을 이주 노동자 정착·적응에 쓴다면 강원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이런 단순한 한층 계절 노동자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정착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앞으로 특히 내년 최대 임박할 것이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도내 외국인 거주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정착해서 대한민국 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미미리미미 준비가 필요하다.

△최용 위원=일본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이 이주 노동자 서비스를 만들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주 노동자와 관련하여 이슈 자체가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만약 대안을 만든다면 청년들을 통해 이주 노동자 서비스를 원활하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한다. 즉, 청년들의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을 돕는 방법이나 서비스도 좋을 듯하다. 최근에는 저출산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

김종기 “자치도 출범·실록 박물관 보도 독자들 관심 끌었”
하광운 “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 경쟁력 낫다는 뉴스 인상적”
최 용 “이주 노동자 돕는 방법·서비스 대한 관심도 필요”
박찬홍 “지역인재 유출 막기 위한 노력·방안 기사화되길”
류인출 “부부 공무원 출산 어렵게 하는 인사 시스템 짚어야”
정별님 “영상 콘텐츠 자막 등 개선해 젊은 세대 구독 확대”

오고 있다. 함께 출산을 0.87명이란 놀라운 숫자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인컴즈) 직원들을 놓고 봤을 때 2.8명 정도 나올 거 같다. 직원 가운데 기혼자 수가 상당히 많다. 서울 젊은이들과는 다른 출산 길을 걷고 있는 듯 하다. 도내 다른 곳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박찬홍 위원=외국인 학생 1,000명 정도 유입해야 한다는 기사를 봤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고 비자에 대한 부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원자치도는 학생 수가 상당히 부족한 데다 강원대 학생의 30% 정도만이 강원도민일 정도로 그 비중이 많지 않다. 게다가

그 학생들조차 취업에 대해 강원도를 떠나야 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학생들이 잘 모른다. 학생들에게 지역 기업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정착 고교생에 국한됐다. 홍보를 하려면 취업과 밀접한 대학 4학년들에게 강원도의 우수 기업을 돌아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글로벌 대학사업 등 지역기반 사업의 확대를 예전에는 교육만 하던 대학들도 이제는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아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강원일보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었으면 한다. 강원도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글로벌 대학 등 교육사업에 지방비가 매칭되는 이유는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류인출 위원=최근 도의회 예산 심의 기간이다 보니 위원회 사진이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실향했다. 그런데 기사와 전혀 관계없는 위원회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기획위 사진이 나오는데 정착 기사에는 기획위 내용이 없었다. 기사 내용에 맞는 사진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소멸 관련해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 자체를 안 한다 보니 시·군 단위에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공무원 부부들 근무지를 갈라 놓으면 출산율이 자체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인사발령 시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해야출산유기할 수 있다. 몇천억원의 예산을 들여도 정착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아내가 태백, 남편이 춘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부부를 만나 보니 이에 출산 계획을 세울 엄두를 못 내더라. 도청뿐만 아니라 경찰 등 지역 산하 공무원들이 다 이 문제에 해당돼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가 나왔으면 한다.

△정별님 위원=저는 지난번에 있어서 유튜브 강원일보 TV에 대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젊은층에서는 제

일 많이 이용하는 게 카카오목이랑 유튜브다. 왜냐면 일어나서 그냥 틀어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일보TV를 구독해 놓긴 했는데, 영상이 올라오면 강원일보TV의 경우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비해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또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영상이 네이버TV에는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강원일보 유튜브에는 없고 네이버에는 있다는 것이 의문이었다. 네이버TV에서 강원일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 강원일보를 보고 싶어도 잘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는 잘 올라와 있으면 좋겠다. 또, 젊은층에서는 영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보지만, 강원일보 TV의 경우 설명 없이나 자막 없이 영상만 던져주는 경우도 있다. 소리 안 나오게 틀어 놓고 자막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강원일보도 젊은 세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심은석 편집국장=유튜브 및 포털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강원일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연말이 다가와 이제 독자위원회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그간 해주시 말씀들을 신문에 조금이나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스포츠면에 넣는 사진이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말씀에 축구·농구·야구 등 주요 종목에서 벗어나 지역·중·고등학교 운동부 사진도 넣는 등 작은 변화와 개선택을 모색하고 있다. 인구 소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산율 등 문제는 강원도의 사회가 걸린 문제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보도를 해나가겠다. 추후에도 좋은 의견들을 들려주시기를 바란다.

정리=김민희·김오미기자

2023 12 05 ()

19

江原日報

먼저 저희 강원자치도의회가 농림어업인들을 제대로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부터 사과를 드립니다. 강원자치도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을 강

원자치도의회가 바로잡고 있음을 도민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글을 씁니다.

농림수산업은 우리 강원자치도 300만 도민 삶의 기본입니다. ‘農者天下之大本也’(농자천하지대본야)라는 말은 우리 강원자치도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안

전한 먹거리 공급과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그에 대한 대책들이 국가·지자체의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의 투자는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시대적 소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정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농림수산 관련 예산편성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농정국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4,813억5,025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농촌

강원포럼

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등은 턱없이 작습니다. 또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허니원 장비 지원 사업’ 등은 단 1원도 편성돼 있지 않은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강원자치도 농업 분야의 R&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혹자는 도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도의회의 황포라느니, 민생예산을 깎고 마치 도의원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만 챙기려고 하느니 등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과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앞에서 밝힌 농업인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배제하고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농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

리 농림수산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강원자치도의회는 30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거나 정실에 의한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곳이라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2024년 유례없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지역 현안 사업 지원 예산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각오를 300만 강원자치도민에게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자치도의회는 도민만을 위해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 예산 의회가 바로잡아야

D(연구개발)를 책임지고 농가소득 증대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 탱크(Think tank)’인 농업기술원은 심의가 불가할 정도로 전 분야에 걸쳐 올해보다 111억원이 넘게 큰 폭으로 삭감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농림수산위원회 전체 의원이 이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유발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가 심의하는 2024년도 농업예산안은 농업인구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농업 관련 대출금 금리의 상승 등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

江原日報

2023 12 04 ()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속초).강정호(속초) 도의원은 5일 오후 6시 속초 켄싱턴호텔 설악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대포동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주민화합 행사에 참석.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엄윤순(인제) 농림수산부위원장, 박호균(강릉).윤길로(영월).홍성기(홍천) 도의원은 5일 오후 2시30분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설명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2 05 ()

14



최명서(위
왼쪽)영월
군수·심재
섭(위 오른
쪽)영월군

의장·윤길로 (영월)
도의원은 5일 오전 11
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서 열리는 제19회 영
월군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05 ()

16



김시성(왼쪽)·강정호
(속초) 도의원은 5일
오후 6시 켄싱턴호텔
설악대연회장에서 열
리는 대포동 지역 기
관·사회단체 및 주민
화합 행사에 참석한
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05 ()

02

강원·서울 싱크탱크 ‘초광역 협력·지역소멸 대응’ 맞손

강원연구원·서울연구원 협약
공동 연구조사·학술행사 계획
양 지역 상생발전 모델 제시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과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초광역협력과 초고령사회·지역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통해 새로운 상생발전 모델을 만들기 로했다.

강원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4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업무협력협약식 및 상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첫 협약은 지난달 초,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업무협약'과 우호교류 1호 실천사업으로 삼척에 조성하는 '골드시티' 사업 협력과 연계해 이뤄진 협약이다.

양 지역 연구원은 협약을 통해 △초광역협력·초고령사회·지역소멸 위기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과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4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업무협력 협약식 및 상생세미나'를 갖고, 초고령사회 및 지역소멸 위기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호

대응 관련 공동연구 및 조사·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 상호 교환

등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 차원의 어젠다인 초고령사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철도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확충된 강원SOC를 중심으로 강원-수도권 간 초

광역협력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강원도로, 이는 강원도가 가진 강점"이라며 "골드시티는 서울시와 강원도가 서로 윈윈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상생방안이다. 그러기 위해선 각 지역 싱크탱크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열린 상생세미나에선 강원·서울 간 협력 방안 및 골드시티 추진 등에 대해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한나 SH주택도시공사 사업기획부 차장이 발제했다. 오정근 서울지방시대위원장도 좌장을 맡아 열린 토론회에선 박상용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 연구위원, 최준영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본부장, 박지는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등이 참여했다. 김덕형·이정호

2023 12 05 ()

강원도민일보

09

춘천시-영국 맨체스터 '태권도 교류' 물꼬 튼다

자매결연·업무협약 타진 중
내년 태권도 행사 초청 계획
시 "다양한 분야 협력 모색"

춘천시가 영국 맨체스터시와 본격적인 스포츠 교류 협력에 나선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를 유치한 중심 도시로서 가장 먼저 영국 맨체스터와 태권도 교류를 시작하겠다"며 세

계적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영국 태권도연맹 본부가 있는 맨체스터는 WT 태권도 그랑프리 파이널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현재 백창석 부시장이 현지에서 맨체스터 측과 스포츠 교류를 협의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이나 업무협약도 타진 중이다.

춘천시는 당장 내년 춘천에서 열리는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세계주니어 태권도선수권대회에 맨체스터시 관계자를 포함한 국가대표팀을 초청하면

서 교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태권도에서 시작된 교류를 축구로 잇겠다는 방안도 내놔다. 박지성 전 축구선수가 몸담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해 2023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 역시 맨체스터가 연고지다.

춘천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을 배출한 지역이다. 맨체스터(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와 같이 2개의 축구단인 강원FC와 춘천시민축구단을 보유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스포츠 분야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태권도종주도시의 역할에 집중한다면 춘천이 세계적인 태권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10월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에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와 태권도문화축제의 3년 연속 개최 유치라는 성과를 이뤘다.

김현경

2023 12 05 ()

江原日報

01

춘천 기업혁신파크 막판 유치전 '7일 분수령'

국토부 현장 실사 마무리... 최종 발표평가만 남아

충남·전남·경상권 각각 2곳과 경쟁... 연내 2~3곳 지정

춘천 '접근성·확장성' 우위... 앵커기업이 성과 가를 듯

속보=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유치(본보 11월24일자 1·2면, 12월4일자 10면 보도)를 두고 춘천을 비롯해 포항, 당진, 거제, 아산, 순천, 담양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7일 최종 발표평가를 앞두고 춘천은 접근성과 확장성, 앵커기업 경쟁력을 무기로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사업 예정지인 남산면 광관리 일원을 둘러봤다.

실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드론 등을 이용해 사업부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은 실사 현장에 참석해 춘천의 경쟁력과 사업 추진 의지를 어필했다.

국토부는 공모전에 뛰어난 전국 7개 지자체 중 연내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관

측도 나온다. 경쟁 도시 중 춘천은 접근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단연 앞서고 있다. 사업 부지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와 3분 거리, 수도권과는 30~40분 거리다.

부지 면적은 368만㎡로 최소 지정조건(50만㎡)의 7배에 달해 확장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또 IT 대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앵커기업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현재 경쟁 도시 중 대기업 계열사 등이 참여한 곳은 포항(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당진(SK렌터카) 등이 포함된다.

기업혁신파크는 공모 요건상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연 매출총액 2,5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중량급 앵커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 12 05 ()

02

춘천 기업혁신파크

막판 유치전 7일 분수령

-1면에서 계속

정부는 기업혁신파크에 대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규제 완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앵커기업 경쟁력이 결국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를 계승하고 있지만 지정요건 등은 완화하고 지원·혜택은 늘려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현재 충주, 원주 기업도시가 준공됐으며 태안, 영암·해남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기업혁신파크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국내 5·6호 기업도시가 된다.

2023 12 05 ()

10

江原日報

춘천시-6개 대학 교육발전특구 조성 힘 모은다

【춘천】춘천시와 지역 6개 대학 총장들이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한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는 돌봄부터 대학의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교육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춰 개편하는 정책이다. 연내 시범 지역을 선정, 내년부터 3년간 운영에 들어간다.

춘천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학도시 정책협의회를

대학도시 정책협의회 열려
대학별 특화 학점제 운영
지역인재전형 유연화 제안

열어 교육발전특구, 글로벌대학 추진, 고교학점제 등 내년도 협력 안건을 논의했다.

대학도시 정책협의회는 시와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송곡대, 한국폴리

텍Ⅲ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우수 인재 양성,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역 정주 여건 확충 등 지역과 대학의 협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연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화두로 꼽혔다. 대학들은 대학별 특화과정 학점제 운영, 지역인재전형 유연화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향후 교육발전특구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

했다. 춘천시 역시 지역 내 6개 대학이 밀집한 점을 바탕으로 대학 역량을 활용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초 시와 6개 대학은 춘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대학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고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시도를 펼쳤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해 개설된 대학별 특화와정은 내년 인공지능, 바이오 분

야 신설을 논의 중이다. 송곡대와 한국폴리텍Ⅲ대학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시는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강원대, 한림대를 포함한 6개 명문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학도시”라며 “대학도시 정책협의회가 글로벌 대학도시 도약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윤호기자

2023 12 05 ()

江原日報

12

강릉시 그린바이오산업 중심지 뜬다

정부 발전협 오늘 강릉서 회의 (주)파마리서치 현지 방문
김명선 부지사 “K-연어 등 천연자원 활용 기업 육성”

【강릉】탄탄한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진 강릉시가 정부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그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5일 KIST강릉분원에서 관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우수기업인 (주)파마리서치 현지 방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천연물소재 코스닥 상장기업인 강릉 (주)파마리서치는 천연자원(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재생물질을 활용해 피부재생 등 조직수복용 화장품 제품을 만들고 있는 우수기업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이들은 우수기업 시설과 제조과정을 견학하고 천연물 소재자원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특히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법규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산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천연물소재 기업 전시부스를 관람하고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 동향을 살피는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가 농식품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조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강릉시는 각종 관련 회의를 지역에서 개최, 산업 발전에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화된 K-연어,

K-곤충, 바이오소재 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농업 전후방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올 3월 평창(서울대GBST)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진태 도지사 등 광역 7개 지자체장,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정부 부처, CJ제일제당 등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 그린바이오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정보공유, 기업 간 연계 강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익기기자 igjung@

江原日報

2023 12 05 ()

12

“마지막 바다열차 타러” 강릉역 구름인파

관광객 몰려 매진... 취소표 얻으러 대기행렬

【강릉】속보=동해안 바다열차 운행이 오는 26일부터 중단(본보 11월23일자 14면 보도)된다는 소식에 마지막 탑승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오전 강릉역 승차장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북새통을 이뤘다. 온라인 예약한 티켓을 발권하기 위한 관광객 수십 명이 창구로 몰렸기 때문이다.

서울·경북 포항 등 먼 타지역과 일본 등 해외관광객 수요에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1~2표에 불과한 취소표를 얻기 위한 대기행렬이 생기기도 했다.

김인우(46·포항 남구)씨는 “며칠 전부터 예매하려 했으나 전부 매진이라 평일 오전 시간대의 취소표를 겨우 구했다”며 “일부 관광객들은 취소표마저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달 바다열차 예매율은 주중·주말 70% 안팎이었으나, 운행

중단 소식이 알려진 12월 티켓은 완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제1호 관광열차인 바다열차는 열차 노후화 등으로 26일부터 운행이 멈춘다.

코레일은 신차도입 예산 140억원 중 절반을 강릉·동해·삼척시 등에서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에서 재정난으로 난색을 표했고 결국 운행 중단이 결정됐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신차도입 예산을 코레일에서 전부 부담하기는 재정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류호준·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05 ()

/ 19

기형적 총선 선거구 고착 우려

-춘천·철원·화천·양구 유지 전망, 대표성 외면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총선 선거구 개편 여부에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 선거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적용된다면 지역 특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춘천과 접경지인 철원·화천·양구는 인접한 지역이긴 하지만, 당면한 현안과 지향점이 상이합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 유출로 공동화의 위기가 심화해, 지역 대표성을 온전히 보장할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인 춘천도 인구 증가세에 따른 독립적인 선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 여론에 부응하는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선거구 개편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확정위원회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현재의 기준대로 통보했습니다.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253명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허용 등입니다.

문제는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됐던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이 이번 확정 기준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당시 여

야는 현행 의석수 8석을 유지하면서, 6개 시·군이 묶인 통합안을 막기 위해 ‘춘천을 예외적으로 인접 지역과 합쳐 분할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상한선 기준을 넘는 춘천을 ‘단독 분구’하지 않고, 일부 읍·면·동을 철원·화천·양구와 통합한 기형적인 획정을 도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유권자와 정가에서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확정 기준에서도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을 적용,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생활권과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짜깁기식 선거구의 피해는 주민들의 뉘그러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과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론은 왜곡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것입니다. 도 국회의원 사이에서 제기된 면적 특례 등을 고려해 농촌 등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춘천 단독분구와 영서 북부 접경지 독립 선거구가 절실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일시적으로 확정됐던 불합리한 선거구가 고착화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정치무관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05 ()

/ 19

강원 대형화재 잦아 철저 예방을

-건조하고 바람 불어인명·재산 피해 키울 수 있어

날씨가 추워지는 데다가 건조하고 강풍이 불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백, 강릉, 평창 등 여러 지역에서 주택이나 창고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도계읍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강릉에서는 집 일부와 농막 등을 태워 40여분 만에 진화했으나 소방서 추산 45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평창군의 한 스키장 용품보관 창고 건물에서도 불이나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강풍이 불고 대기가 건조할 때는 특히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월 1일 양양 원포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70여명의 인력과 산림과 소방당국 헬기와 장비 등을 긴급 투입해 40여분 만에 다행히 진화되었으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산불은 강풍 세기와 바람의 방향 등에 따라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고 험악한 지형에서 발생할 경우엔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커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일원에서 대형 산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이재민들이 고통을 경험한 만큼 예방과 감시 활동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강원은 최근 3년간 대형 화

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22년 전국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68건 중 경기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2위가 강원 8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형 화재는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피해, 재산 피해 50억원 이상 초래한 화재로 강원은 인구 대비 대형 화재 발생 건수가 월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3년간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585명에 달하고 1조 300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으나, 절반 가까운 32건은 화재 원인 조차 규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적 요인 11건, 부주의 10건이 다수 화재 원인인 확인되는 만큼 취약하지 않도록 점검에 소홀해선 안 됩니다.

작은 화재라도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확산하기 쉬운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화재 안전 조사가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지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방화문 등 방어를 관리가 생활화돼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 12 05 ()

/ 19

‘비대면 진료’, 문제점 꼼꼼히 살펴 정착시켜야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성뿐 아니라 IT와 의료·바이오 기술이 융합하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IT 강국임에도 의료의 상업화 주장에 밀려 수십 년째 시범사업만 하면서 이런 흐름에 뒤처져 있다. 또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즉, 오는 15일부터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15개 시·군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기

존 섬과 벽지 주민에게만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 초진을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없는 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했다. 시범사업이지만 적절한 조치다. 의료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비대면 진료’는 특히 병원이 가까이 없는 도서 벽지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여기에다 정보통신기술과 의료를 결합한 ‘헬스’ 시장 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비대면 진료’가 안고 있는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빈틈없이 분석, 보강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다. 그동안 이미 여러 문제점이 거론됐다. ‘비대면 진료’로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해 동네 병원이 고사할 수 있고 이는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대면 진료’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결국 좋은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될 수 있다. 비용도 문제다. 환자는 혈당이나 혈압 등을 직접 측정해 정보를 의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측정

기기나 전송장치를 설치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 서버 등 고가의 장비를 선뜻 구비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오진이나 과실 등 ‘비

15일부터 도내 15개 시·군에서 초진 가능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 메울 수 있어 ‘긍정적’

대형 병원 쏠림 현상 극복 등 과제 산적

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 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예상되는 개선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오지 환자들을 위해 이점이 많고 성장 전망이 밝다면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의료 수혜자의 의견을 존중함은 물론 정부, 환자, 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江原日報

2023 12 05 ()

/ 19

고금리에 주택 매도 급증, 가계부채 악화 관리를

구입 3년도 안 돼 주택을 되판 집주인이 도내만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도내 전체 주택 매도자의 40%에 이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강원자치도 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연립 등)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도인(법인, 국가기관을 제외한 내국인)은 총 1만6,587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기간별로 보면 '2년 초과 3년 이하'로 집을 내놓은 매도인은 3,126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1년 초과 2년 이하' 주택을 보유했던 매도인이 2,608명으로 뒤를 이었다. '1년 이하'도 1,172명이었다.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미만인 총 매도인 수가 6,906명으로 전체의 41.6%였다. 지역별로 원주가 4,8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춘천 3,201명, 강릉 1,611명, 속초 1,583명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집을 매도한 집주인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조사 결과 11월 신규취급기준 주택담보대출 은행별 평균 금리는 5.20~6.97% 구간을 보였다. 2021년 1월 당시 은행별 평균 금리가 2.58~3.47%였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3년 사이 1.5배 이상 오

른 셈이다. 고금리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을 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빚의 액수가 불어나고 있는 것도 걱정이지만 빚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보험과 적금을 깨 빚을 해결하는 가계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살던 집을 팔아넘기는 경우는 그만큼 가계의 상환 부담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 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그만이지만 요즘처럼 바닥인 상황에서는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 속에 가계 빚이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마저 하강할 경우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데다 금융기관 여러 곳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빚을 갚기 어려워진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집을 처분해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금리에 따른 가계 빚의 급증은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된다. 정교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